# 불안정한 노사·높은 인건비, 광주 車산업 발전 제약

## 10여년새 수출 14배 증가 주력산업 성장
## 부품산업 미흡 경제적 효과 타지역 유출

### 한은 광주전남본부 보고서

광주지역 자동차산업의 제약요인으로 기아차의 불안정한 노사관계, 높은 인건비 부담 등이 지적됐다.

2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김범서 과장과 노정우 조사역이 내놓은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의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자동차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수출액은 2000년 3억7000만달러에서 2012년 49억8000만달러로 약 13.5배로 증가했고 전국 수출액 대비 비중은 2.4%에서 6.9%로 늘었다. 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2000년 각각 141개, 8000명에서 2011년 229개, 1만3000명으로 각각 62.4%, 66.8% 증가했다.

또 보고서는 2012년 기아차 광주공장이 연 62만대 생산체제를 갖춰 광주 자동차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생산 규모가 100만대로 늘어날 경우 광주지역 경제 효과는 생산유발 11조2000억원, 부가가치유발 2조5000억원, 수출유발 53억1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광주의 자동차산업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들도 많았다. 우선 완성차업체에 비해 소재, 부품산업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다.

광주지역 완성차의 생산액(2011년 기준)이 전국의 12.6%(8조7000억원) 수준이나 부품업체의 생산규모는 전국의 4.1%(3조3000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의 자동차 생산 및 수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타 지역으로 유출, 지역경제 자체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또 낮은 생산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성(2011년 기준)은 기아차 해외공장의 60~70% 수준으로 세계 완성차 업체와 비교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아차 등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의 임금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 '임금은 높지만 생산성은 낮다'는 해석을 낳았다.

노사관계 불안정도 큰 제약요인으로 제기됐다. 임금협상 등과 관련한 파업이 연례적으로 발생, 생산차질을 초래하면서 지난 2005~2013년 중 두 해(2010년, 2011년)를 제외하고는 파업으로 연평균 3만4000대 생산차질 및 5877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불안정한 노사관계, 높은 인건비 부담은 국내 생산보다 해외생산 비중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광주 기아차의 위축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밖에 광주 자동차산업을 지원하는 핵심기술 개발 및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미흡 등 자동차 산업관련 연구 및 인재 양성 인프라 부족 등도 제약요인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광주지역 자동차 산업의 향후과제로 최근 세계자동차 산업이 고유가, 국제환경규제 강화, IT융합기술의 발달, 수요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직면해 있는 점을 감안, 광주지역 산학연관이 협력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차세대 자동차산업의 발전방향에 부응한 장기전략을 수립하도록 촉구했다.

또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 간 네트워크 강화·공조체제 구축 및 유망분야 투자강화, 자동차산업 관광단지 조성 등을 내용으로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및 노사지자체의 협력방안을 향후과제로 제시했다. 이 밖에 산학협력을 통한 우수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핵심기술 개발 등도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 첫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 상무광명메이루즈 496세대 착공

상무지구 지역주택조합이 광주지역 최초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착공에 들어간다. 현재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는 4곳의 아파트 가운데 처음이다.

24일 상무지구 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상무 광명 메이루즈 조합아파트는 최근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9일 착공에 돌입한다. 광명 메이루즈 조합아파트는 전용면적 84㎡(35형), 68㎡(28형) 496세대로 지어지며 광명주택이 시공을 맡았다.

상무지구에서 최고층을 자랑하는 31층 높이로, 최고의 마감재 및 첨단 시스템을 적용해 시공할 예정이다. 특히 착공 뒤에는 조합세대 외 잔여세대는 일반분양할 예정이며 1·2층에는 대형 상가를 조성, 주상복합 형태로 완공될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공동구매 형식으로 지어져,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10~20%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광주에서는 현재 상무지구 외에도 본촌동과 백운동, 각화동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진행중이다.

김영호 조합장은 "광주 최초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착공에 들어가는 만큼, 지역 주택 사업에 큰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한다"며 "상무지구라는 최고의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하루 빨리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062-511-7400)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올 종부세 내달 16일까지 납부하세요

### 국세청, 24만7000명에 1조3687억원 부과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 의무자 24만7000명에게 1조3687억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고지 인원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27만5000명)에 비해 10.2% 감소했으나, 고지 세액은 토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1조2796억원)에 비해 7.0% 증가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1인당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 가운데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이 경우엔 1%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종부세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해 다음 달 12월 16일까지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내년 2월 17일까지 낼 수 있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엔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6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납세 대상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안내했다"며 "납부 기한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축협 학동 하나로마트 개점** 광주축산농협(조합장 안명수)은 지난 22일 광주시 동구 학동에 웰빙 하나로마트 개점식을 가졌다. 이번 이전 개장한 웰빙 하나로마트는 1층 243㎡(74평) 고객전용 판매장과 2층 257㎡(78평) 축산물 작업장 및 냉동보관 창고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오픈을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대대적인 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지속가능한 소비자제품책임'
## 금호고속 고속버스 부문 1위

금호고속은 지난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2013 소비자제품책임 1위' 시상식에서 고속버스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지속경영평가원에서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 금호고속은 제품의 안정성, 제품의 법규준수, 고객만족 및 사후처리, 소비자와의 소통, 제품의 사회적 책임 5개 항목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 1위를 수상하게 됐다.

금호고속은 '고객행복경영'을 근간으로 타 운송업체와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호고속 임직원은 '현장 60'활동을 통해 매일 60분씩 영업 현장에 나가 현장 업무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고객들과 대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우리버스 타기' 제도를 시행해 고객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체감한 후 이를 적용시켜 개선하고 있다.

이덕연 금호고속 전무는 "고객의 행복을 위해 업계 1위에 만족하지 않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가장 믿고 타는 고속버스를 만들기 위해 전 임직원이 솔선수범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로또복권** (제573회)

| 당첨번호 | | | | | | 2등보너스 숫자 |
|---|---|---|---|---|---|---|
| 2 | 4 | 20 | 34 | 35 | 43 | 14 |

| 등 위 | | 당첨금(원) | 당첨자수 |
|---|---|---|---|
| 1 | 6개 숫자 일치 | 1,645,691,766 | 8 |
| 2 | 5개숫자+ 보너스 숫자일치 | 43,885,114 | 50 |
| 3 | 5개 숫자 일치 | 1,352,809 | 1,622 |
| 4 | 4개 숫자 일치 | 50,000 | 78,997 |
| 5 | 3개 숫자 일치 | 5,000 | 1,308,493 |

# 현대차 신형 제네시스 사전계약 4일만에 5200대 돌파

현대자동차는 오는 26일 출시 예정인 신형 제네시스가 사전계약 첫날 3500대의 계약고를 기록한데 이어 나흘간 5200대의 누적 계약실적을 올렸다고 24일 밝혔다.

신형 제네시스의 첫날 계약고는 국내 대형차급 시장에서 역대 최대 실적일뿐만 아니라 2010년 그랜저(7115대) 이후 출시된 현대차 모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기록이다.

경쟁 수입차들의 연간 실적과도 비슷하다. 특히 국내에서 수입차를 포함한 전체 대형차급의 월평균 판매량이 7500대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수치다. 게다가 세부 제원이나 가격조차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실적을 기록한데 대해 현대차는 흥행 돌풍을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글로벌 유통업체, 지역기업과 6000만달러 수출상담

### 광주 '2013 코리아 그랜드 소싱 페어' 성료

21일 광주에서 열린 '글로벌 수출상담' 행사인 '2013 코리아 그랜드 소싱 페어(Korea Grand Sourcing Fair)'에서 6000만 달러의 수출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2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세계 1~3위 유통업체인 월마트·까르푸·테스코와 중국 상위 유통업체인 바이리앤 그룹·리앤화 슈퍼마켓·쑤궈 슈퍼마켓 등 33개사 59명의 빅바이어가 지역 중소 수출 업체 121개사와 구매 상담을 했다.

이번 상담에서 278건에 6092만달러 어치의 수출상담이 이뤄지고 수출계약 예정액도 1074만달러로 집계됐다.

278건은 사전에 이미 매칭된 상담 194건 외에 현장에서도 진행된 즉석 매칭 상담 84건이 추가된 것이다.

대표적인 상담 사례는 중국 우마트스토어가 가보팜스 등 지역 식품업체와 150만달러 규모, 까르푸가 지본코스메틱 등 지역 화장품 업체와 170만달러 규모의 상담을 한 것이다.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는 "지역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글로벌 대형 유통바이어를 직접 만나 상담하고 구매 결정권이 있는 빅바이어 관계자들과 효율적인 수출 상담까지 한 것에 대해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